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인터넷회원 클럽 최고 3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www.hpdmastery.co.kr 061320-7700, 7714

‘여고생 力士’ 이애라 3년 연속 3관왕

광주체고 여자체조 대회 4연패... 전남 순천대 이현주 사격 2관왕

광주와 전남이 제88회 전국체육대회 3일째인 10일 기대했던 종목들의 선전이 잇따르면서 초반 예상된 순항을 펼치고 있다.

이애라(광주체고)가 역대 여고부 75kg급에서 3년 연속 3관왕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으며 기대했던 박은경(광주체고)은 체조 여고 개인종합과 단체전에서 2관왕에 올랐다. 특히 광주체고 여고부는 단체전에서 체전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은혜(광주시체육회)도 수영 여자일반에서 2관왕에 올랐다.

이나영·손연희(광주벨인퍼컴)는 볼링 여자 일반부 2인조전에서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현주(순천대)는 양궁 여대부에서 2관왕을 썼으며 최진(순천시청)은 대회타이거를 작성하며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나아름(전남미용고)은 사이클 여고부에서 2관왕 질주를 했으며 노효성(나주시청)은 여자일반부 3관왕에 올랐다.

또한 김지윤(전남체고)은 유도 여고부에서 2년 연속 2관왕 기쁨을 누렸으며 한기쁨(여수정보과학고)과 천주연(전남체고)도 금메달을 보태 8체급중 4체급을 석권하는 과업을 일으켰다. 한규철(보성군청)도 수영 남자일반에서 금빛영역을 펼쳤다.

광주는 금 12개, 은 11개, 동 16개를 추가해 금 21개,

은 19개, 동 23개를 기록했고, 전남은 금 14개, 은 4개, 동 9개를 추가해 금 26개, 은 13개, 동 19개를 확보했다. 이애라(광주체고)는 광주살레시오 경기장에서 열린 여고부 75kg급에서 인상 95kg·용상 126kg·합계 221kg으로 3관왕에 올랐다. 이나영·손연희(광주벨인퍼컴)는 ABC볼링장에서 열린 볼링 여자 일반부 2인조전에서 1천170점으로 금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고 여자단체팀은 호남대학교 체조장에서 열린 체조 여고부 단체전에서 196.550점으로 획득해 체전 4연패와 올 전국대회 4관왕 기쁨을 누렸다.

남경운(광주시청)은 보디빌딩 남자일반부 75kg에

서 5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따냈고, 조선대학교 김도는 남자 대학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경화·선보경·이지선·이은혜(광주시체육회)는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 계영 8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빛영역을 펼쳤다.

이외에 광주는 살레시오고가 테니스 남고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확보했으며 여고 조찬미(살레시오고)도 동메달을 확보하는 등 단체대진종목에서도 선전을 펼쳤다.

전남은 양궁과 유도의 날이었다. 이현주(순천대)가 양궁 여대부 30m에서 357점을 썼으며 50m에서는 344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 2관왕에 올랐다. 최진(순천시청)은 여자일반 30m에서 358점으로 대회타이를 쓰며 금과녁을 명중시켰다.

정대권(금성고)은 사이클 남고 스크래치, 나아름(전남미용고)은 여고 2km개인추발에서 2분40초 852로 금메달 땀.

나아름·홍현자·이수진(전남미용고)은 여고 단체스프린트에서 1분14초 901로, 강덕조·노효성·유진아(나주시청)는 여자일반 단체스프린트에서 1분12초 672로 역시 금빛질주를 펼쳤다.

■ 광주·전남 히어로

광주체고 이애라



“베이징올림픽 메달 꿈”

“컨디션이 안 좋아 걱정했는데 무난히 기록을 달성해 마음이 편안합니다”

10일 전국체전 여고부 75kg급에서 3년 연속 3관왕을 들어올린 여고생 역사 이애라(광주체고 3년)는 “고향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양산중학교 1년때 바벨을 잡은 이 선수는 ‘제2의 장미란’을 꿈꾸고 있다.

2005년 태극마크를 단 이애라 선수는 이미 국내에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서 외롭기까지 하다. 올 해도 3월 춘계대회와 체고 대회전에서 3관왕을 거뜰히 들어 올렸으며 6월 세계주니어 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세계의 벽을 조심스럽게 노크해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역도계에서도 한국신기록을 작성할 기대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장미란의 대를 이을 선수로 평가하고 있다. 이 선수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곧바로 12월에 있을 아시아주니어 선수권 준비를 위해 다시 바벨을 잡아 야 한다.

이 선수는 “이번 체전에서 장미란 선수를 만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내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 고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표 이은혜 ‘금빛 점영’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한 광주대표 이은혜가 금빛 영역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오늘 주요 경기

- ▲검도=일반 단체전(오전 9시·서석고 체육관)
- ▲레슬링=남고, 남대, 여자일반(오전 9시 30분·조선대 체육관)
- ▲배구=남고(오전 10시·전남대 체육관), 남대(오후 2시), 남자일반(오전 10시·이상 광주여성체육관), 여고(오전 10시), 여자일반(오후 2시·이상 송원여성체육관)
- ▲배드민턴=남고, 남대, 남자일반, 여고, 여대, 여자일반(오전 9시·광주대 체육관)
- ▲복싱=남고, 대학 라이트플라이급, 밴텀급(이상 광주교대 다목적회관), 대학 라이트웰터급, 미들급, 일반(이상 광주고 체육관)
- ▲볼링=남고(오후 12시 30분), 여고(오후 4시·이상 더원볼링장), 남자일반(오후 3시), 여자일반(이상 오후 12시 30분·ABC 볼링장)
- ▲수영=남고, 남자일반, 여고, 여자일반(오전 9시·영주수영장)
- ▲씨름=대학, 일반(오전 9시·광주공고 체육관)
- ▲양궁=여고, 여대, 여자일반(오전 9시 30분·영주양궁장)
- ▲역도=여자일반(오전 10시·정광고 체육관)
- ▲유도=남고(살레시오고체육관)
- ▲육상=트랙·필드(오전 10시·월드컵경기장 육상장)
- ▲체조=남고, 남자일반, 여고, 여자일반(오전 9시·호남대 체육관)
- ▲에어로빅=고등·일반(오전 10시·조대여고)
- ▲축구=남고부(광주공무원교육원 축구장), 남대(무등경기장 축구장), 남자일반(호남대축구장), 여고(과학기술원 축구장), 여자일반(전남대 축구장)
- ▲태권도=남고, 남대(오전 9시·다목적체육관)
- ▲테니스=남고(패밀리테니스), 여고(이상 오전 9시·조선대 테니스), 남대, 남자일반, 여대, 여자일반(이상 오전 10시·영주테니스)
- ▲핸드볼=남고, 여고(오전 9시 30분·영주체육관)
- ▲펜싱=남고, 여고(오전 9시·동강대 체육관)
- ▲하키=남고, 여자일반(오전 9시·조선대 하키장)

■ 화제의 인물

축구묘기 우희용씨 英동포 선수로

공을 머리에 푹푹 뒤킨다며 수비수를 제치는 ‘물개 드리블’ 장면이 실제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영국동포단 축구 대표로 출전한 세계 묘기축구 1인자 우희용(43)씨는 10일 조선대 인조잔디구장에서 호주동포팀과의 8강전 경기를 가졌다. 결과는 0-2 영국팀의 패배.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우씨는 현란한 드리블 끝에 몇 차례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영국 대표팀으로서 ‘쳐너 출전’이라는 경험부족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경기 전 만난 우씨는 “영국에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축구 클럽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가끔 경기에 나서 물개 드리블을 선보인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우씨는 고교시절 부상으로 인해 선수생활을 접고 18년 전 독일로 가 재기, 3부리그에서 선수생활을 마친 뒤 묘기축구로 세계를 평정했다.

지난 2002년 유럽묘기축구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스타급 선수들과 광고를 찍었는데가 하면 2004년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 풀럼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를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우씨는 “무등산이 가까이 있어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가 세련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우씨는 11일 오후 6시부터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해외동포선수단과 시민 한마당 어울림’ 행사에서 묘기축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희용씨가 10일 조선대 인조잔디구장에서 ‘물개 드리블’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관중 몰이 스타

박태환 금 물살...1,500여 관중 함성

박태환이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고부 계영 800m에서 서울팀의 마지막 영자로 나서 역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마린보이” 박태환(18·서울)이 빛고을에서 금빛 향연을 시작했다.

박태환은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수영 남고부 계영 800m에서 서울팀의 마지막 영자로 출전, 7분40초34만에 터치패드를 찍어 총복합을 9초22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태환은 2005년 울산체전에서 금메달 4개, 지난해 경북체전에서 금메달 5개를 따내 통산 1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영주수영장에는 1천5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시작 1시간 전부터 2층 관람석을 가득 메웠고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월드스타 박태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박태환은 총복합에 1m가량을 뒤지고 있던 세 번째 영자가 반환점을 돌기 전까지 상의를 벗지 않은 채 시종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관중 사이에서는 “박태환이 출전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몇 번 돌리던 박태환이 세 번째 주자가 도착하기 무섭게 물로 뛰어 들었다. 분명 두 번째로 스타트를 했지만 잠영이 끝나고 물 위로 솟았을 땐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200m 물살을 가르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계속됐다.

박태환은 연습을 하는 듯 두드러지게 팔을 움직였고 2위와의 차이가 7m 이상 벌어진 상태로 결승점에 도착했다.



박태환이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고부 계영 800m에서 서울팀의 마지막 영자로 나서 역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경기 꼭! 보세요

장미란 3관왕 도전 정광고

김덕현 세단뛰기 월드컵경기장

“누굴 보러 가야하나...”

전국체전 나흘째인 11일에는 ‘마린보이’ 박태환(서울), ‘세계적 여자 역사’ 장미란(경기), ‘세단뛰기 챔피언’ 김덕현(광주), ‘최고의 스프린터’ 임희남(경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스타들이 총 출동한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 3연패 위업을 이룬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광주 정광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여자일반부 75kg이상급 인상, 용상, 합계에서 가볍게 3관왕 바벨을 들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힘을 많이 쏟은 만큼 무리한 기록 도전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수영의 박태환도 이날 오후 3시30분 영주수영장에서 자유형 200m에 출전, 금빛 물살을 가른다.

기초 종목 육상도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장을 뜨겁게 달군다.

지난해 김천 전국체전 MVP 김덕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남사 세단뛰기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17m07) 경신을 목표로 힘찬 도약을 펼친다.

8월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유일하게 ‘톱 10’에 들어간 김덕현은 고향에서 뛰는 만큼 마음은 가볍다.

“한국 단거리 육상의 희망” 임희남은 이날 오후 12시 45분 28년 묵은 100m 한국기록(10초34)에 도전한다.

임희남은 지난 6월 한국기록에 100분의 2초 모자란 10초36을 찍었다. 사실상 이번 체전이 올해 출전하는 마지막 대회인 만큼 가는 기대가 더욱 크다. 이날 기록을 깨지 못하면 100m 한국기록은 ‘29년 묵은’이라는 반갑잖은 수식어를 달게 된다.

“국내에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있는 허들 해괴파 듀오 박태환(광주)과 이준진(경기)의 기록 뛰어넘기도 관심사다.

올해에만 세 번이나 한국기록을 갈아치운 여자 해머던지기 강나루(익산시청)도 네 번째 기록던지기를 꿈꾸고 있다.